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간이국한문』의 한자어

전무용*

작업 원칙의 대강

『개역개정판 간이국한문』 성경은 새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이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한자어에서 온 말을 모두 한자어로 적어서 출간하는 성경이다. 이 글은 『개역개정판』의 간이국한문판의 한자어 작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글이다. 모든 한자어는 한자어로 표기한다는 한 가지 원칙밖에 없는 작업이었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작업 내용을 정리하여, 『개역개정간이국한문』 성경의 한자어 작업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개역간이국한문』¹⁾의 한자어 표기 원칙과 정신을 따르는 것을 대 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말은 모두 한자어로 적었고, 틀리지 않은 한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같은 말에 대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집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²⁾에서 올림말로 사용한 한자어가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와 다른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한자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가 틀렸거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서 성경의 번역 과정에 만들어서 사용했던 말이었거나,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가 기타 자전들에서도 지지하는 더 일반적인 한자어일 경우에는 이를 따랐다.

이와 반대로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가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에 비해서 더 존중할 만하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하였다.

1.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적용한 원칙과 같이, 한자어에서 온 말은 모두 한자어로 적고 우리말은 한글로 적었다.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1) 이 책의 이름은 『聖經全書 貫珠改譯簡易國漢文한글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64)이다. 이 글에서는 『개역간이국한문』으로 약칭한다.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1999).

이 원칙을 따라서 ‘유월 시월’ 등도 ‘六月 十月’로 적었다. 표준어 규정에서 토박이말로 판단하고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우레’ 같은 말은 ‘雨雷’로 적지 않고 ‘우레’로 적었다³⁾.

2.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이 본문이 같을 경우에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① 산악: 계 16:20에서는 山岳이고, 시 98:8; 사 22:5에서는 山嶽이다. 嶽은 岳과 동자(尙字)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두 한자어를 같이 올렸다⁴⁾.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신약은 山岳 구약은 山嶽으로 적었다. 어느 쪽으로든지 통일할 수도 있지만, 두 말을 다 쓰는 것이 문제가 없으므로,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시 98:8] 山嶽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⁵⁾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山岳도 간 데 없더라

3. 『개역개정판』이 『개역한글판』과 본문이 달라져서 새로운 한자어를 써야 할 경우에 내용에 맞는 한자어를 찾아서 적었다.

① 정교하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 “공교(工巧)”로 적었던 말을 『개역개정판』에서 “정교”로 개정한 곳이 많이 있다. “精巧”로 적었다.

[출 26:1] 너는 聖幕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 실과 靑色 紫色 紅色 실로 그룹을 精巧하게 繡 놓은 열 幅의 揮帳을 만들지니

② 제어(制馭): 약 3:3의 경우에 『개역한글판』의 용어는 “어거(禦拒)”였다. 『개역개정판』에서 “제어”로 개정하였으므로, 다른 곳의 『개역』의 한자어를 따라(삼하 3:39, 잠 27:16 등) “制馭”⁶⁾를 썼다.

[잠 27:16] 그를 制馭하기가 바람을 制馭하는 것 같고

③ 접대하다: 행 6:2의 『개역한글판』 본문은 “공궤”였다. 『개역개정판』에서 “접대”로 개정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개역간이국한문』 약 2:25; 겔16:61의 본문에서 사용했던 “接待”⁷⁾를 썼다.

3) 출처를 밝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예시하는 낱말과 설명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용이다.

우뢰 「명」 「1」 ‘우레01’의 잘못. 「2」 『북』 ‘우레01’의 북한어.

우레01 「명」=천둥. 『우레가 울다/우레가 치다/먼 하늘에서 우레가 울려왔다.

4) 산악(山岳/山嶽) 「명」 높고 험준하게 솟은 산들.

5) 이하에서 역본 표시가 없는 모든 한국어 성경 본문은 『개역개정판』 본문이다.

6) 제어(制御/制馭) 「명」 「1」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룸. cf. 어거 어거(馭車) 「명」 「1」 수레를 매운 소나 말을 부리어 모는 일.

7) 접대(接待) 「명」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들.

접대(接對) 「명」 맞아들여 대면함.

『개역개정』 [행 6:2] 열두 使徒가 모든 弟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接待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 표기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자 사전들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1) 한글로 적어야 할 말을 『개역간이국한문』에서 한자어로 적은 경우에 한글로 적어서 바로잡았다.

① 통소(계 18:22 외 2):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洞簫”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이 “통소”로 한글로만 올림말을 사용했다.⁸⁾ 『개역개정판』에서도 한글로 적었다.

② 미장이(왕하 22:6):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靡匠이”였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⁹⁾ 한글로 적었다.

③ 차꼬(시 106:18):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着錮”였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한글로 적었다.

④ 주추(눅 6:4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柱礎”였으나,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랐다.

⑤ 짚레(미 7:4): 『개역간이국한문』에서 “蒺藜”로 썼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한글로 적었다.

⑥ 외양間(욥 39:9):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喂養間”이었으나,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라 “외양間”으로 적었다.

⑦ 간수하여: “간수하여”는 한자어로 적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¹⁰⁾ 한글로 적었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한자어 “看守”로 되어 있었다.

[사 27:3] 나 여호와와는 葡萄園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⑧ 재주(삿 16:27): 『개역간이국한문』에서 “才操”로 적었으나,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¹¹⁾ “재주”로 적었다.

⑨ 잔잔하다(욥 26:12): 성경에서 사용한 말들은 모두 우리말 “잔잔하다”이다.¹²⁾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잔잔(潺潺)하다”를 썼지만, “잔잔하다”로 바로잡

8) 통소 「명」 『음』 ‘통소’의 잘못.

9) 미장-이 「명」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0) 간수 「명」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

11) 재주 「명」 「1」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슬기.

왔다.

[마 8:26]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者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⑩ 시중들다 : (잠 27:18)

“侍從(시종)하다(창 45:1)”는 “侍從”을 쓰고, “시중들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¹³⁾ 한글로 적었다.

[잠 27:18] 無花果나무를 지키는 者는 그 果實을 먹고 自己 主人에게 시중드는 者는 榮華를 얻느니라

⑪ 제금: 『중사전』에서는 한글로만 “제금”으로 올림말을 신고¹⁴⁾, 설명과 함께 악기의 그림도 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제금 提金: 자바라의 잘못”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말을 한자어로 적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제금”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것 같다. 이성실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제금으로 번역했고 대상 15:19만 닛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의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 ‘제금(提琴)’의 한자어가 모두 잘못되었는데, ‘제금(提金)’이 옳바다. 공동번역에서는 대부분 바라로 번역했지만 시150:5에 나오는 두 번의 첼첼림을 한 번은 자바라, 한 번은 징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은 대부분을 “심벌즈”로 번역했고 스3:10은 “자바라”로 시150:5는 두 번 다 “제금”으로 번역했다.¹⁵⁾

이성실의 지적대로,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제금(提琴)”이라고 한자어로 현악기의 이름을 쓴 것은 모두 잘못이다. 이를 ‘제금(提金)’으로 한자어로 적는 것도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대로¹⁶⁾ 오류이다.

한자어에서 온 말을 모두 한자로 적은 『선한문』¹⁷⁾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한

12) 잔잔01 ‘잔잔하다01’의 어근.

잔잔-하다01 「형」 「1」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잠잠하다.

잔잔03(潺潺) ‘잔잔하다03’의 어근.

잔잔-하다03 「형」 「1」 흐르는 물소리가 가늘고 나지막하다.

13) 시중-들다 「동」 【…을】 옆에서 직접 보살피거나 심부름을 하다.

14) 한글학회, 『중사전』 (서울: 한글학회 출판부, 1959).

제금(악) 자바라의 한 가지. 닛쇠로 납비 뚜껑 비슷이 만들었는데, 두 개를 한 벌로 하여 한복판의 내민 데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서 두 손에 들고 마주 쳐서 소리를 낸. “바라”보다 작음.

15) 이성실, “구약의 악기에 대한 소고와 우리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1(2002), 90-114.

16) 제금(提金) 「명」 『음』 ‘자바라’의 잘못.

제금(提琴) 「명」 『음』 「1」 중국 명나라, 청나라 때에 만들어 쓰던, 현악기의 하나. 올림통은 야자나무의 열매를 파서 만들며 위는 뱀 껍질이나 오동나무 판으로 메우고 한옆에 대를 세우고 두 줄을 매어 말총으로 맨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글로만 “제금”(“제금”의 옛 표기)으로 적어 왔다. 『구역』을 번역할 때에 “제금”이라는 낱말을 처음 썼던 번역자들이 사용한 말은 “제금(提金)”이나 “제금(提琴)”이 아니라, 자바라의 일종인 토박이말 “제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중사전』을 따라 한글로 “제금”으로 적는다.

[시 150: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讚揚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讚揚할 지어다

⑫ 把守꾼 : 『개역간이국한문』에서 “把守軍”과 같이 적었던 말들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把守꾼”과 같이 바로잡는다.

[창 10:9] 사냥꾼(사냥軍으로 적지 않는다.)

[창 42:30] 偵探꾼(“偵探軍”으로 적지 않는다.)

[창 50:14] 護喪꾼(“護喪軍”으로 적지 않는다.)

[출 12:45] 품꾼(“품軍”으로 적지 않는다.)

[삼상 13:17] 擄掠꾼(“擄掠軍”으로 적지 않는다.)

[삼상 14:16] 把守꾼(“把守軍”으로 적지 않는다.)

[대하 30:6] 步撥꾼(“步撥軍”으로 적지 않는다.)

[렘 46:21] 雇傭꾼(“雇傭軍”으로 적지 않는다.)

[마 13:30] 秋收꾼(“秋收軍”으로 적지 않는다.)

(2) 원래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취음하여 적은 말인 경우에는 한글로 적었다.

① 종지: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鐘子.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② 대접: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大楮.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③ 동무: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同侪.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④ 답답하다: ‘ 짹짹하다’로 적지 않고,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⑤ 노엽다: 『개역간이국한문』은 “怒엽다”이지만,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⑥ 요(행 5:15): 『개역간이국한문』은 “癘”로 적었다.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만 적는다.

⑦ 시장하고: “漸腸하고”로 적지 않고 한글로만 적는다.

⑧ 기운: 한글로만 적는다.¹⁸⁾

17)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경성, 대영성서공회, 1926), 이 성경은 구역 본문을 바탕으로 모든 본문의 어간 부분을 한자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성경이다. 당시 한국인 성서 번역자들의 수준 높은 한학 또는 한문 실력이 본문 전체에 반영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성경이다. 이하 『선한문』으로 약칭한다.

18) 기운01 「명」[1]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 「2」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⑨ 기타, “구경, 수고, 억지로” 등등은 원래 우리말이므로 한글로 적는다.

(3) 『개역간이국한문』에서 한글로 적었던 말을 한자어로 적는 경우

① 축(鑿): 다음 “축”을 모두 다 “鑿”으로 적는다¹⁹⁾.

[출 26:17] 각 판에 두 鑿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출 26:17; 출 26:19; 출 36:22; 출 36:24; 욥 20:25; 욥 41:26.

② 장대(長대)

다음 두 곳은 “長대”로 적었어야 할 곳인데,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개역간이국한문』도 한글로만 적었다. 『중사전』에서는 “장대”로 한글로만 올렸던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長대”로 적는다²⁰⁾.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長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者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4) 본문 내용에 맞는 한자어로 조정하는 경우

① 고용: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²¹⁾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雇傭”이었던 잠 26:10; 렘 22:13의 본문을 “雇用”으로 고쳐서 적었다. 레 25:50; 렘 46:21 등은 내용에 따라서 “雇傭”으로 적었다.

• “雇用”으로 적은 곳:

[렘 22:13] 自己의 이웃을 雇用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者에게 禍 있을진저

[잠 26:10] 雇用하는 것은 지나가는 行人을 雇用함과 같으니라

• “雇傭”으로 적은 곳:

[렘 46:21] 또 그 中의 雇傭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逃亡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災難의 날이 이르렀고 罰 받는 때가 왔음이라

[레 25:50] 그 年數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定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雇傭된 날로 여길 것이라

② “付託”과 “付托”은 뜻이 비슷하여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付託”만을 올림말로 올렸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른다²²⁾.

[벧전 2:23] 付托하시며 > 付託하시며

기운03(氣運) 「명」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19) 축(鑿) 「명」「1」긴 물건의 끝에 박힌 뾰족한 것.

20) 장-대(長-) 「명」「1」대나무나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

21) 고용02 雇用 「명」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고용03 雇傭 「명」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

22) 부탁(付託) 「명」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또는 그 일거리.

③ 박석(礪石): 이 말은 의미상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에서 쓴 대로 “박석(礪 뒤섞일 박, 널리 덮일 박; 石 돌 석)”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올림말로 쓴 “박석(薄石 얇을 박, 돌 석)”을 현재의 표준 표기로 보고 이를 따랐다²³⁾.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의 “박석礪石”은 일종의 만들어서 쓴 말로 보인다.

[겔 40: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三面에 薄石 깔린 땅이 있고 그 薄石 깔린 땅 위에 여러 房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④ 기계(機械)²⁴⁾: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말이 대상 21:23에서 1회만 나온다. 곡식 떠는 기계를 “탈곡-기(脫穀機)”라 하는데, 이 말에서도 한자어 ‘機’를 쓴다. “器械”를 쓰지 않고,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한다.

[대상 21:23] 穀食 떠는 機械는 火木으로, 밀은 素祭物로 삼으시기 爲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5) 개역의 한자어가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경우

① 단련: “단련(鍛鍊)”을 “하련(鍛鍊)”으로 잘못 쓴 곳을 모두 바로잡았다. (욘 5:4; 욥 23:10; 시 12:6; 시 26:2; 66:10; 시 105:19; 렘 6:29; 계 1:15)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이 글자를 틀린 글자로 쓰고 있다. 쇠 불릴 단(鍛), 목투구 하(鍛).

② 연단(鍊鍛): 鍊鍛(연하)로 오식된 곳을 모두 바로잡는다.

[벧후 2:14] 굳세지 못한 靈魂들을 誘惑하며 貪慾에 鍊鍛된 마음을 가진 者들이니 詛呪의 子息이라

③ 전갈: 『표준국어대사전』이 “全蠍(전갈)”을 올림말로 올렸다²⁵⁾. “蠍”자는 “전갈 갈”자로 본음은 “혈”이었다. 개역의 한자어는 “전갈(全蠍)”이었다. “蠍”자는 “शल 혈, 개이름 갈”자이다. 개역의 한자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었다. (또는 통상적으로 약자처럼 “蠍”자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본래의 한자어로 바로잡는다.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全蠍을 밟으며 怨讐의 모든 能力을 制馭할 權能을 주었으니 너희를 害질 者가 決코 없으리라

④ 상소(上疏)²⁶⁾:

23) 박석(礪石) 「명」얇고 넓적한 돌.

24) 기계06(器械) 「명」「1」연장, 연모, 그릇, 기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구조가 간단하며 제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의료 기계나 물리·화학의 실험용 기계 따위가 있다.

기계07(機械) 「명」「1」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 단위로 대, 조, 틀 따위가 있다. 『기계 제조/기계가 돌아가다/기계를 돌리다/기계를 조립하다/그는 기계를 잘 다루는 숙련공이다.

탈곡-기(脫穀機) 「명」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낱알을 떨어내는 농기계. 『탈곡기로 벼를 탈곡하다.

25) 전갈01(全蠍) 「명」『동』「1」전갈목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역간이국한문』 행 25:26에서 “上疏”를 “上疏”로 바로잡았다.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이 틀린 글자를 사용하였다. 上疏(행 25:26)와 上訴(행 25:11)는 동일하지 않는다. 행 25:11은 『개역한글판』에서 “呼訴”로 적었던 말을 “上訴”로 개정한 것이다. 맥락의 의미로 볼 때에 동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역간이국한문』에서 달리 썼던 말이고, 원문이 같지 않으므로, 동일하지 않는다.

[행 25:11] 萬一 내가 不義를 行하여 무슨 죽을 罪를 지었으면 죽기를 辭讓하지 아니할 것이나 萬一 이 사람들이 나를 告發하는 것이 다 事實 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上訴하노라 한대

[행 25:26] 그에 對하여 皇帝께 確實한 事實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審問한 後 上疏할 資料가 있을까 하여 當身들 앞 特히 아그립바 王 當身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⑤ 사정27): 『개역간이국한문』의 에베소書 빌립보書 골로새書에서 “사정(私情)”으로 쓴 것은 오류이다. “事情”으로 적어야 할 곳이다.

[엡 6:21] 나의 事情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兄弟요 초 안에서 眞實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빌 2:19] 우리 事情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慰勞하기 爲하여 내가 特別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 4:7]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事情을 眞實히 생각할 者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욥 16:13은 『개역한글판』에서 “인정(人情)”으로 번역되었던 말로서, “사정(私情)”으로 적어야 하는 곳이다.

『개역한글판』[욥 16:13]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人情)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개역개정國漢文』[욥 16:13] 그의 화살들이 四方에서 날아와 私情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구약 본문에서 출 23:9 “너는 異邦 나그네를 壓制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事情을 아느니라”와 같이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올바르게 되어 있었던 본문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⑥ 종족: “種族”과 “宗族”은 맥락에 맞게 쓴다²⁸⁾.

26) 상소02(上疏) 「명」 『역』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상소03(上訴) 「명」 『법』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27) 사정06(私情) 「명」 개인의 사사로운 정. ≒ 사패. 『사정이 없는 사람/사정에 끌리다.

사정07(事情) 「명」 「1」 일의 형편이나 까닭. 『피치 못할 사정/사정이 딱하다.

[계 14:6] 또 보니 다른 天使가 空中에 날아가는데 땅에 居住하는 者들 곧 모든 民族과 宗族과 方言과 百姓에게 傳할 永遠한 福音을 가졌더라

⑦ 철퇴: 『개역간이국한문』은 시 74:6의 “철퇴”를 “鐵椎(철추)”로 적었다. 椎는 “뭉치 추, 방망이 추”로서, 뜻으로 보아서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시 74:6의 『개역한글판』 본문이 “철퇴”이므로,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잘못 적은 것이다. 아마 퇴고(推敲)의 “推(퇴)”와 음을 혼동한 듯하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도 렘 51:20은 “철퇴(鐵槌)”로 올바르게 적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철퇴(鐵槌)로 통일하여 바로잡는다.

[시 74:6]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鐵槌)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렘 51: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鐵槌) 곧 무기라

⑧ 전복29):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렘 31:28에 “轉覆(전복)”을 사용했다. 이 말이 꼭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顛覆(전복)”으로 고쳐서 적는다. 『동아한한대사전』에서도 “轉覆(전복)”은 올림말에 없다. 전통적으로 이 한자어를 쓴 것이 아니라,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의미가 통하는 한자어로 낱말을 만들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선한문』은 “覆”만을 썼고, 게일역30)은 “顛覆”을 쓰고 있다. “轉覆(전복)”은 “顛覆(전복)”으로 고쳐서 적는다.

[렘 31:28]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顛覆하며 滅亡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6)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미의 변화가 낱말에 반영되는 경우

포수: “捕手”와 “砲手”31). 이 두 말은 옛 한자어에서 통용할 수 있었던 낱말이지만, 야구가 들어온 이후로 “捕手”를 특정한 위치의 야구 선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을 “포수(捕手)”로 표현하였다. 야구 경기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사냥꾼을 포수(捕手)로 적었던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두 말을 구분하였다. 의미를 구분한 것을 따라 사냥꾼을 가리키는 말로는 “砲手”를 사용한다.

[렘 16:16] 그 후에 많은 砲手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山과 모든 언덕과 바위

28) 종족01(宗族) 「명」성(姓)과 본(本)이 같은 거래붙이. ≍부족05(部族)

종족02(種族) 「명」같은 종류의 생물 전체를 이르는 말.

29) 전복09(顛覆) 「명」뒤집혀 엎어짐. 또는 뒤집어 엎음.

30) 『新譯新舊約全書』(京城: 基督教彰文社, 大正 14, 1925)

31) 포수05(砲手) 「명」1)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포수04(捕手) 「명」『운』 야구에서, 본루를 지키며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선수.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5. 한 말을 서로 다른 한자어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올림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① 훼방(譏謗/毀謗)(사 37:23): 『개역간이국한문』에서 “譏謗”을 썼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라³²⁾ 같은 뜻의 말인 “毀謗”을 쓴다. “譏”와 “毀”는 같은 글자이다.

[사 37:23] 네가 毀謗하며 凌辱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向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나라

② 좌석³³⁾: “坐”와 “座”는 본디는 같은 글자였으나, 나중에 “坐”는 동사 “座”는 명사로만 각각 쓰이게 되어 오늘날에는 두 글자를 구분하여 쓰게 되었다.³⁴⁾ “坐席”을 쓰지 않고, “座席”으로 통일하여 쓴다.

[왕상 10:5] 床의 食物과 그의 臣下들의 座席과 그의 侍從들이 侍立한 것과

③ 좌정³⁵⁾: “座定”을 쓰지 않고, “坐定”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시 29:10] 여호와께서 洪水 때에 坐定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永遠하도록 王으로 坐定하시도다

④ 통분³⁶⁾: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통분(痛憤)”만을 올렸고, “통분痛忿”은 올리지 않았다. “忿”은 “성내다”는 뜻이며, “분한 마음”이라는 뜻에서 “憤”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다. “憤”은 “결내다, 빈민하다, 분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통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통분(痛憤)”으로 통일한다.

[단 2:12] 王이 이로 말미암아 震怒하고 痛憤하여 바벨론의 모든 智慧者들을 다 죽이라 命命하니라

⑤ 가책³⁷⁾: 苛責과 呵責은 다른 뜻의 비슷한 말이다. 요 8:9에서 본문의 의미에 맞는 한자어 가책(呵責)을 선택하였다. 『개역간이국한문』은 “가책(苛責)”을 썼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요 8: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良心에 呵責을 느껴 어른으로 始作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女子만

32) 훼방(毀謗) 「명」 「1」 남을 헐뜯어 비방함. 또는 그런 비방.

33) 좌석(座席) 「명」 「1」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

34) 이가원, 권오돈, 임창순 감수, 『동아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387 참조.

35) 좌정(坐定) 「명」 「1」 자리 잡아 앉음. 남을 높일 때나 점잖게 이를 때에 쓴다.

36) 통분02(痛憤) 「명」 원통하고 분함.

37) 가책01(呵責) 「명」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함.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일이 잘못되자 몹시 가책이 되었다.

가책02(苛責) 「명」 몹시 심하게 꾸짖음.

남았더라

⑥ 전례³⁸⁾: 시 122:4의 “傳例”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쓰고 있는 “전례(傳例)”가 올림말에 없다. 『동아한한대사전』에도 “전례(傳例)”는 올림말에 없다. 의미상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어사전이나 자전들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까운 말로 “典例”(전거가 되는 선례)가 올라 있다. 『개역간이국한문』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 말로 수정한다. 룻 4:7와 시 122:4의 ‘전례’는 히브리어 표현이 서로 다르다. 룻 4:7도 “典例”(전거가 되는 선례)의 성격이 있는 말이지만, 의미상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쓴 대로 前例로 둘 수 있다. 예 1:13의 ‘前例’는 ‘manner’에 가깝다.

[룻 4:7] 옛적 이스라엘 中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交換하는 일을 確定하기 爲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中에 證明하는 前例가 된지라

[예 1:13] 王이 事例를 아는 賢者들에게 묻되 (王이 規例와 法律을 아는 者에게 묻는 前例가 있는데

[시 122:4] 支派들 곧 여호와의 支派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感謝하려고 이스라엘의 典例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⑦ 한가(閑暇): 『개역간이국한문』의 용어는 “한가(閒暇)”(신 24:5; 사 18:27)이다. “閒”은 “틈 간, 한가할 한”으로 읽히는 말이다. “한가(閒暇)”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어를 따라³⁹⁾ “한가(閑暇)”로 고쳤다.

[신 24:5] 그는 一 年 동안 閑暇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 18:27] 단 子孫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祭司長을 取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閑暇하고 걱정 없이 사는 百姓을 만나

⑧ 마술사(魔術師): 『개역간이국한문』의 魔術士(사 19:3)를 쓰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마술사(魔術師)”를 따른다⁴⁰⁾.

[사 19:3] 애굽人的 精神이 그 속에서 衰弱할 것이요 그의 計劃을 내가 깨뜨

38) 전례01(典例) 「명」전거가 되는 선례. 『전례로 삼다/모든 일은 전례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례02(典禮) 「명」「1」왕실이나 나라에서 경사나 상사가 났을 때 행하는 의식. 『국왕의 영결식은 장중하고도 화려한 전례 속에서 이루어졌다. §「2」일정한 의식. 「3」조선 시대에, 『경국대전』과 『가례(家禮)』를 아울러 이르던 말. 「4」『가』교회가 단체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또는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

전례03(前例) 「명」「1」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유례03(類例) [2]. 『전례를 남기다/산업 혁명 이후, 시장 경제는 인류에게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발전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예로부터 의롭지 못한 군사를 일으켜서 멸망치 않은 전례가 없느니라. ≪박종화, 임진왜란≫§「2」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

39) 한가04(閑暇) ‘한가하다02’의 어근.

한가.하다02 「형」겨울이 생겨 여유가 있다.

40) 마술.사(魔術師) 「명」마술을 부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주술사(呪術師)

리리니 그들이 偶像과 魔術師와 神接한 者와 妖術客에게 물으리
로다

⑨ 연락(聯絡/連絡)⁴¹⁾: 『표준국어대사전』이 두 한자어를 다 올림말로 올렸다. 여기서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 표기를 따라 “聯絡”으로 썼다.

[느 13:4] 以前에 우리 하나님 의 殿의 房을 맡은 祭司長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聯絡이 있었으므로

6. 한자어에서 온 말 가운데서 한자어 원음과 우리말 발음 및 표현이 달라진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린 말을 따랐다.

① 맹세(盟誓): “맹세”는 원래 “맹서(盟誓)”에서 온 말이다. 한국어 표기는 “맹세”가 표준 표기가 되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자어 올림말로 “盟誓(맹서)”를 함께 올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올림말을 따라⁴²⁾, 『개역간이국한문』의 표기를 따라, 이 말을 한자어로 적는다.

[창 24:8] 나의 이 盟誓가 너와 相關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② 곤란(困難): 원음은 “곤난”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올림말을 “곤란”으로 올리고⁴³⁾, 한자어는 “困難”으로 올리고 있다.

[시 4:1] 내 義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應答하소서 困難 中에 나를 너그
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恩惠를 베푸사 나의 祈禱를 들으소서

7. 한자어에서 온 말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글로만 올림말을 올린 경우에는 한글로 적었다.

“조용히”는 “맹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종용(從容)히”에서 온 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용하다”는 우리말로만 올림말을 올리고, “종용(從容)”은 별도의 올림말로 올렸다⁴⁴⁾. 이를 따라 “조용하다”는 우리말로 적는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從容”으로 적었다.)

[민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百姓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
가서 그 땅을 取하자 能히 이기리라 하나

8. 두음법칙 때문에 한글 표기가 한자음과 달라진 경우에는 한자어로

41) 연락02(連絡/聯絡) 「명」 「1」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림.

42) 맹세02(盟誓) 「명」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서맹(誓盟).

43) 곤란(困難) 「명」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 또는 그런 일.

44) 조용01 ‘조용하다01’의 어근.

조용-하다01 「형」 「1」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

종용01 從容 ‘종용하다01’의 어근.

적었다.

연한(年限), 연대(年代), 여관(旅館) 등.

9. 한자어가 속자인 경우에, 정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정자로 적는 경우

① 침상(寢牀)⁴⁵⁾: “寢床”으로 적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寢牀”으로 올렸다.

② 조각목(阜角木): 성경에서 쓰고 있는 조각목(阜角木)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각-자(阜角子)”로 올리고, “조협자(쥐엄나무)”로 설명하고 있다⁴⁶⁾. 梲은阜의 속자이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속자 “梲”를 쓰고 있지만, 정자인 “阜”를 쓴다. 『표준국어대사전』도 올림말에는 “阜”자를 쓰고 있다.

[출 25:10] 그들은 阜角木으로 櫃를 짜되

③ 비밀(祕密), 자매(姊妹), 구애(拘礙)⁴⁷⁾ 등: 秘는 祕의 속자이고, 姉는 姊의 속자이고, 碍도 礙의 속자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올림말을 따라 정자로 적는다⁴⁸⁾.

[삼상 18:22] 너희는 다윗에게 祕密히 말하여 이르기를

[딤펴 5:2] 늙은 女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女子에게는 穩妥히 깨끗함으로 姊妹에게 하듯 하라

[고전 7:15] 或 믿지 아니하는 者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兄弟나 姊妹나 이런 일에 拘礙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和平 中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④ 평상(平床/平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한자어를 다 올렸다⁴⁹⁾. 정자인 “平牀”으로 적는다.

[막 4:21] 사람이 燈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平牀 아래에 두려 함이나 燈檠 위에 두려 함이 아니나

⑤ 절도: 『개역한글판』에서 “竊盜”를 썼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라⁵⁰⁾ 같은 뜻의 말인 “竊盜”를 쓴다. “竊”은 “竊”의 속자이다.

[요 10:1] 내가 眞實로 眞實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門을 通하여 羊의 우리에

45) 침상05(寢牀) 「명」누워서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위가 넓고 평평하고 다리가 달렸다.

46) 조각-자01(阜角子) 「명」『한』=조협자01.

조협-자01(阜莢子) 「명」『한』 쥐엄나무 열매의 씨. 피를 잘 돌게 하고 부은 것을 내리고 고름을 빼며 풍을 없애고 독을 푼다.

47) 구애03(拘礙) 「명」 거리끼거나 얽매임.

48) 비밀(祕密) 「명」 「1」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자매03(姊妹) 「명」 「1」 여자끼리의 동기(同氣). 언니와 아우 사이를 이른다.

49) 평상01(平牀/平床) 「명」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살평상과 널평상의 두 가지가 있다.

50) 절도04(竊盜) 「명」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者는 竊盜며 強盜요

⑥ 참여(參與): 參與는 속자이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參與(속자)로 적었다. 정자 參與로 적는다.

[빌 4: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參與하였으니 잘하였도다

⑦ 억울(抑鬱)⁵¹⁾: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울”자를 속자로 썼다. 정자로 쓴다.

[암 5:12] 너희의 허물이 많고 罪惡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義人을 虐待하며 賂物을 받고 城門에서 가난한 者를 抑鬱하게 하는 者로다

⑧ 소생(蘇生/甦生)⁵²⁾: “소(甦)”는 소(蘇)의 속자. “蘇生”을 쓴다. 국어사전의 한자어 표현과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 “소성(蘇醒 시 19:7)”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시 23:3] 내 靈魂을 蘇生시키고 自己 이름을 爲하여 義의 길로 引導하시는 도다

⑨ 원통(冤痛)⁵³⁾: 속자인 “冤痛”을 쓰지 않고, 정자인 “冤痛”으로 적는다.

[행 7:24] 한 사람이 冤痛한 일 當함을 보고 保護하여 壓制 받는 者를 爲하여 怨讐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⑩ 소고(小鼓)⁵⁴⁾: 小鼓(시 149:3)는 “小鼓”의 속자이다. 정자를 쓴다.

[시 149:3] 춤 추며 그의 이름을 讚揚하며 小鼓와 豎琴으로 그를 讚揚할지어다

(2) 예외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 『개역간이국한문』에서 모두 속자를 쓰는 경우, 이를 따랐다.

① 희롱: 戲(戲의 속자)弄.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戲弄”을 사용하고 있다. “戲”자는 “戲”의 속자이지만, 정자가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이고, 『표준국어대사전』이 “희롱(戲弄)”을 올림말로 올리고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랐다⁵⁵⁾.

[마 27:31] 戲弄을 다 한 後 紅袍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十字架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51) 억울(抑鬱) ‘억울하다’의 어근.

억울-하다 「형」【…이】 【-기가】 애매한 일을 당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52) 소생06(蘇生/甦生) 「명」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

53) 원통01(冤痛) 「명」 분하고 억울함. 『생전 사후의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뉘 있더라 말이나. <송기숙, 녹두 장군> /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이 세상에서 다만 한 사람인 스승을 볼 때에, 길에서 악물고 오던 설움과 원통이 한꺼번에 폭발하였다. <김동인, 젊은 그들> §

54) 소고04(小鼓) 「명」 『음』 「1」=작은북 [1]. 「2」농악에 쓰는 작은 북. 양면을 가죽으로 메웠으며, 운두가 낮고 작은 북으로 대개 자루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나무 채로 친다. ≍수고02(手鼓).

55) 희롱(戲弄) 「명」 「1」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② 상(床): 속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이 이 한자어를 올림말로 올리고 있다⁵⁶⁾. 이를 따른다.

③ 결심(決心, 삼상 20:9) : 속자 “결(決+夫)”을 쓰지 않고, 정자로 決心으로 쓴다.

[대하 2: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의 爲하여 聖殿을 建築하고 自己 王位를 爲하여 宮闕 建築하기를 決心하니라

④ 암혈(巖穴/岩穴)⁵⁷⁾: 암(岩)은 암(巖)의 속자. 정자인 “암혈(巖穴)”로 통일해서 적을 곳이지만, 원문의 표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역간이국한문』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에 차이가 있는 까닭도 이러한 원문의 차이에 대한 반영으로 보인다. 19절 암혈(巖穴), 21절 암혈(岩穴)을 그대로 따른다.

[사 2:19] 사람들이 巖穴과 土窟로 들어가서

[사 2:21] 岩穴과 險惡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震動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⑤ 등상(凳床): “床”이 속자이지만, “凳牀”을 쓰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⁵⁸⁾ “凳床”을 쓴다.

[마 5:35] 하나님의 발 凳床임이요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가지 한자어를 올렸을 때에, 본문의 의미에 차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올린 올림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를 필요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① 기대(企待/期待) (행 12:11; 빌 1: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期待”를 선행 올림말로 올렸지만⁵⁹⁾,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企待”로 적었다.

[행 12:11] 主께서 그의 天使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百姓의 모든 企待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② 성곽(城郭/城廓):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한자어를 다 올림말로 올렸다⁶⁰⁾. 민중서림 『한한대사전』은 城郭만 올림말로 썼고, 장삼식 『한한대사전』은 城廓만 올림말로 썼다. 『동아한한대사전』은 “城郭”의 설명으로는 “=城廓”으로만 풀이

56) 상04(床) 「명」1 음식을 차려 내거나 걸터앉거나 책을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만든 가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반, 책상, 평상 따위가 있다.

57) 암혈(巖穴) 「명」=석굴02(石窟). 『암혈에 숨어 살다/암혈에 눈비 맞으며 일부러 고행을 사서 하는 거사도 있거늘, 이 어찌 고생이라 할 것이냐.

58) 등상02(凳床) 「명」나무로 만든 세간의 하나. 발판이나 걸상으로 쓴다.

59) 기대03(期待/企待) 「명」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60) 성곽(城郭/城廓) 「명」1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하고, “城廓”에서 “내성과 외성의 전부”라고 이 말을 설명하고 있다. “城廓”에 우위를 둔 편집이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城廓을 썼다.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城廓으로 통일한다.

[대하 26:15]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武器를 考案하게 하여 望臺와 城廓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③ 참담(慘澹/慘愴): 『개역간이국한문』에서 “慘澹”(삿 11:35)을 썼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말을 다 올림말로 올리되, “慘澹”을 먼저 올렸다⁶¹⁾. “慘澹”을 쓴다.

[삿 11:35] 입다가 이를 보고 自己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慘澹하게 하는 者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者 中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向하여 입을 열었으니 能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④ 진주(眞珠/珍珠)⁶²⁾: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眞珠”로 통일함.

[마 13:46] 極히 값진 眞珠 하나를 發見하매 가서 自己의 所有를 다 팔아 그 眞珠를 사느니라

⑤ 탄식(歎息/嘆息): 『표준국어대사전』이 두 한자어를 다 올리고 있다⁶³⁾.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嘆息”을 사용한다.

[시 102:5] 나의 嘆息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⑥ 반역(叛逆): 『표준국어대사전』이 “反逆/叛逆” 두 말을 다 쓰고 있다⁶⁴⁾.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叛逆”으로 적는다.

[잠 17:11] 惡한 者는 叛逆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殘忍한 使者가 보낼을 받으리라

⑦ 호위대(護衛隊)⁶⁵⁾: 왕을 호위하는 것을 “扈衛”로 쓰므로, “扈衛隊”도 쓸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 규정 및 『개역간이국한문』을 따라 “호위대(護衛隊)”로 통일하여 적는다. 기타 “호위”라는 말도 모두 『개역간이국한문』을 따라 “護衛”로 적는다.

[왕하 11:6] 三分의 一은 수르 門에 있고 三分의 一은 護衛隊 뒤에 있는 門에 있어서 이와 같이 王宮을 注意하여 지키고

⑧ 번역(翻譯/翻譯)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선행 올림말로 적은 “翻譯”

61) 참담(慘澹/慘愴) 「명」 「1」 끔찍하고 절망적임.

62) 진주05(眞珠/珍珠) 「명」 진주조개 대합 전복 따위의 조가비나 살 속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

63) 탄식02(歎息/嘆息) 「명」 한탄하여 한숨을 쉰. 또는 그 한숨.

64) 반역(反逆/叛逆) 「명」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65) 호위-대01(扈衛隊) 「명」 『역』 대한제국 때에, 국왕의 호위를 맡았던 군대. 1897년에 궁내부에 두었다가 광무 9년(1905)에 호위국으로 바꾸어 주전원에 소속하게 하였다.

호위-대02(護衛隊) 「명」 「군」 호위하는 일을 맡은 부대.

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⁶⁶).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사용한 한자어는 모두 “번역(繙譯)”이었다. 마 1:23, 막 5:41, 막 15:22, 막 15:34, 요 1:38, 요 1:41, 요 1:42, 요 9:7, 행 4:36, 행 9:36, 행 13:8.

[마 1:23]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繙譯한즉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⑨ 흔적(痕跡): 『개역간이국한문』(갈 6:17)도 흔적(痕跡)이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선행 올림말도 “痕跡”이다⁶⁷). “痕跡”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갈 6:17] 이 後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痕跡을 지니고 있노라

⑩ 흉악(凶惡/兇惡): 두 한자어가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⁶⁸의 선행 올림말을 따랐다.

[사 58:6] 내가 기뻐하는 禁食은 凶惡의 結縛을 풀어 주며 명에의 줄을 끌러
주며 壓制 當하는 者를 自由하게 하며 모든 명에를 꺾는 것이 아
니겠느냐

⑪ 근방(近方)⁶⁹):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의 왕상 1:9에서는 近傍을 썼지만, 『선한문』의 왕상 1:9에서는 “近方”이었다. 본문 맥락으로 볼 때에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근방”은 “近方”으로 통일한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 “근방(近方)”으로 적은 곳: 창 14:6; 마 14:35; 눅 8:37; 행 14:6

『개역간이국한문』에서 “근방(近傍)”으로 적은 곳: 왕상 1:9

『개역간이국한문』에서 “근지(近地):로 적은 곳: 신 1:7

[창 14:6] 호리 族屬을 그 山 세일에서 쳐서 曠野 近方 엘바란까지 이르렀으
며

[눅 8:37] 거라사人的 땅 近方 모든 百姓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
기를 求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⑫ 분노(憤怒):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말의 올림말을 “분노(憤怒)”로만 올렸다. 『중사전』에는 “忿怒/憤怒” 둘 다 올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를 기준으로 하여, “분노(忿怒)”를 쓰지 않고 “분노(憤怒)”로 통일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올림말을 따라 忿恨은 憤恨으로 통일한다.

[시 90:9] 우리의 모든 날이 主의 憤怒 中에 지나가며 우리의 平生이 瞬息間에

66) 번역(繙譯/翻譯) 「명」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67) 흔적(痕跡/痕迹) 「명」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68) 흉악(凶惡/兇惡) 「명」「1」성질이 악하고 모험.

69) 근방01(近方) 「명」=근처.

근처(近處) 「명」가까운 곳.

근방02(近傍) 「명」「1」=근변. 「2」『수1』어떤 점에 대하여 그 점을 포함하는 개집합.

근변(近邊) 「명」가까운 주변.

다하였나이다

⑬ 접(接)붙이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接을 썼다.(롬 11:17-24) “接木”과 “接木”은 통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역간이국한문』을 따라 적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적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接붙이다”로 적었다.⁷⁰⁾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들橄欖나무인 네가 그들 中에 接붙임이 되어 참橄欖나무 뿌리의 津液을 함께 받는 者가 되었은즉

⑭ 율법사(律法師):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마 22:35만 “律法士”를 썼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사(律法士)를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한글판』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모두 “율법사(律法師)”(눅 7:30; 10:25; 11:45, 46, 52, 14:3)를 쓰고 있다. 원문은 같다. 『개역개정판』에서는 마 22:25 외의 나머지 律法師들을 모두 “律法教師”로 개정하였다. 마 22:35도 “律法教師”를 따라서 “律法師”로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율법-사(律法司)⁷¹⁾가 올라 있지만, 이는 회당을 관리하던 관리를 뜻하는 말로써, 다른 말이다.

[마 22:35] 그 中의 한 律法師가 예수를 試驗하여 묻되

[눅 7:30]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律法師들은 그 洗禮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⑮ 기근(飢饉/饑饉): 둘 다 통용할 수 있는 한자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飢饉과 饑饉 두 한자어를 같이 올렸는데, “飢饉”을 먼저 올렸다⁷²⁾.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饑饉”을 더 많이 썼지만(12회), “飢饉”도 쓰고 있다(4회). 원어가 다르지 않으므로, 『개역간이국한문』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饑饉”으로 통일한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 饑饉을 쓴 곳: 창 47:4; 삼하 21:1; 왕상 8:37; 대상 21:12; 욥 5:20; 사 14:30; 렘 5:12; 겔 5:12; 암 8:11; 마 24:7; 막 13:8; 롬 8:35.

『개역간이국한문』에서 飢饉을 쓴 곳: 시 33:19; 시 37:19; 시 105:16; 눅 21:11.

70) 『표준국어대사전』이 “접목02(接木/接木)”에 두 한자어를 다 올린 것처럼, “접붙이다”도 “접(接)붙이다”처럼 두 한자어를 다 올렸어야 하는 곳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올림말이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아도 좋을 만큼 한자어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인들의 한자어 사용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

접-붙이다(接---) 「동」『농』【…을 …에】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온다) 「1」나무에 접을 붙이다

접목02(接木/接木) 「명」「1」『농』나무를 접붙임. 또는 그 나무. 「2」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시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는 국악과 대중가요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71) 율법-사(律法司) 「명」『중』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 건물의 관리 및 안식일례(安息日禮)의 집행 순서 따위를 정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였다.

72) 기근03(飢饉/饑饉) 「명」「1」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饑饉: 곡식이 익지 않음을 “饑” 채소가 익지 않음을 “饉”이라 한다. (장삼식, 『대한한사전』)

飢饉: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한 것. (장삼식, 『대한한사전』)

⑩ 간교: 『개역간이국한문』은 잠 7:10에서만 “간교(奸狡)”를 썼고⁷³⁾, 창 3:2; 27:35 삼하 13:3; 욥 5:13; 렘 23:26 등에서는 “간교(奸巧)”를 썼다. 『표준국어대사전』과 『동아한한대사전』에서 『중사전』 등에서 “奸巧”만을 올림말로 올리고 있다⁷⁴⁾. “奸(범할 간)狡(교활할 교)”라는 말은 『개역간이국한문』에서 만들어서 쓴 말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간교(奸巧)”로 통일한다.

⑪ 감찰⁷⁵⁾: 監察과 鑑察은 동일한다. 『개역간이국한문』 대하 16:9; 24:22에서만 “監察”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50회는 모두 “감찰(鑑察)”을 사용하였다. 원문에 차이가 없고, 본문 맥락의 내용상 “鑑察”의 의미이므로, “감찰(鑑察)”로 통일한다.

[대하 16:9]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鑑察하시라

[시 17:3] 주께서 내 마음을 試驗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鑑察하셨으
나

⑫ 전대: 한자어 纏帶와 纏袋가 있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수 9:4에서만 “전대(纏袋)”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왕하 5:23; 잠 1:14; 학 1:6; 마 10:9; 막 6:8; 눅 10:4; 눅 22:35; 눅 22:36은 “전대(纏帶)”를 사용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纏帶”로만 적고 있다⁷⁶⁾.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서 이 단계에서 모두 “纏帶”로 통일한다. 『동아한한대사전』에서는 “전대(纏帶) 전(袋)자루 대)”를 “전대(纏帶)”라고 풀이하고 있다.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고, 같은 뜻의 말이다.

[수 9:4] 헤어진 纏袋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葡萄酒 負袋를 나귀에
싣고

11. 동음이의어로서 맥락에 따라 달리 써야 하는 한자어는 구분하여 적었다.

① 심장⁷⁷⁾

- 심장(心腸) : 빌 1:8; 렘 17:10; 렘 20:12
- 심장(心臟) : 삼하 18:14; 시 38:10

73) [잠 7:10] 그 때에 姦生의 옷을 입은 姦狡한 女人이 그를 맞으니

74) 간교02(奸巧) 「명」간사하고 교활함. ◻간교를 피우다/사기꾼의 간교에 넘어가다/그는 소인배가 되어 갖은 간교를 부리며 살아간다.

75) 감찰01(監察) 「명」「1」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 또는 그런 직무.
감찰03(鑑察) 「명」상대편이 보아 살핌을 높여 이르는 말. 주로 한문 투의 편지에서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말이다.

76) 전대10(纏帶) 「명」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 주로 무명이나 베로 폭이 좁고 길게 만드는데 양 끝은 트고 중간을 막는다.

77) 심장01(心腸) 「명」마음의 속내.
심장02(心臟) 「명」「1」『의』주기적인 수축에 의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계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② 정확(精確)하다/ 정확(正確)하다⁷⁸⁾: “정확하게(행 18:26)”는 『개역한글판』에서는 “자세하게”였다. 행 18:26은 ‘자세하고 면밀하게’의 뜻을 가진 “精確”으로 적는다. 신 27:8에서는 “正確하게”로 적는다. 이 곳은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명백히”였다.

[행 18:26] 그가 會堂에서 膽大히 말하기 始作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道를 더 精確하게 풀어 이르더라

[신 27:8] 너는 이 律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分明하고 正確하게 記錄할지니라

③ 장대하다 : “장대(壯大)하다”와 “장대(長大)하다”는 서로 다른 말이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민 13:32; 사 10:33만 길이로 “長大하다”로 쓰고, 다른 곳은 모두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장대(壯大)하다”로 쓴다.

명사 “장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長대”로 적는다⁷⁹⁾.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에서는 한글로만 적었던 말이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장대하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었다.

壯大 - 사 18:7; 사 45:14

長大 - 민 13:32; 신 1:28; 삼하 23:21; 사 18:2; 사 10:33.

『鮮漢文聖經全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었다.

壯大 - 신 1:28; 삼하 23:21; 사 18:2; 사 18:7; 사 45:14.

長大 - 사 10:33.

● 壯大로 쓴 곳:

[신 1:28] 그 百姓은 우리보다 壯大하며 그 城邑들은 크고

[사 18:2] 너희는 江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壯大하고 俊秀한 百姓 곧 始初부터 두려움이 되며 强盛하여 對敵을 밟는 百姓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 長大로 쓴 곳:

[민 13:32] 거기서 본 모든 百姓은 身長이 長大한 者들이며

[사 10:33] 그 長大한 者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者가 낮아질 것이며

④ 표적(表蹟/標的)⁸⁰⁾ : 두 말이 서로 다른 말이므로,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여

78) 정확01(正確) 「명」바르고 확실함.

정확04(精確) 「명」자세하고 확실함.

79) 장-대02(長-) 「명」1)대나무나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 ≒장간02(長竿), 장대기. 『장대를 휘둘러 새들을 쫓다/개천가에 서서 비탈 동네를 바라보면 비탈 중간쯤에 장대 끝에 흰 기가 펼쳐 보이는 집이 보이는데...』

장대04(壯大) ‘장대하다01’의 어근.

장대-하다01 「형」1)허우대가 크고 튼튼하다. 『기골이 장대하다』

장대07(長大) ‘장대하다02’의 어근.

장대-하다02 「형」길고 크다.

80) 표적03(標的) 「명」1)목표로 삼는 물건. ≒기표03(記標). 표점 [1] . 『표적으로 삼다』

적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적(表迹)”을 한자어 올림말로 올리고 있지만, 특별한 용어이므로,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하여 “表蹟”으로 적는다. “형적(形跡/形迹)”이나 “유적(遺跡/遺蹟)”의 한자어에서 보듯이, 迹 跡 蹟 등은 의미상 통용할 수 있는 한자어이다.

[마 12:38] 그 때에 書記官과 바리새人 中 몇 사람이 말하되 先生님이여 우리에게 表蹟 보여주시기를 願하나이다

[시 74:4] 主의 對敵이 主의 會衆 가운데에서 떠들며 自己들의 旗발을 세워 標的으로

⑤ 회복(回復/恢復)⁸¹⁾: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의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은 말로 올렸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두 말을 다 사용하였다.

『국어대사전』⁸²⁾에서는 “回復: 이전 상태와 같이 돌이킴. 恢復: 쇠퇴한 국세나 가세나 병세 등을 예전대로 바로잡음”이라고 하여 뜻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한자어의 음과 훈은 다음과 같다.

回(돌 회, 돌다 돌아오다) 復(돌아올 복): 이전의 상태와 같이 됨.

恢(넓히다, 갖추다) 復(돌아오다, 뒤집다): 이전의 상태로 돌이킴(돌아감). 영역의 회복.

내용상으로 볼 때에, 원어의 구분이 없고, 두 한자어가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글자의 뜻을 따라서 구분하여 보자면,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이킨다는 뜻으로 쓰는 回復(복구의 개념)과, 나라(영역)의 恢復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사 49:8 “예루살렘의 回復” 같은 소제목은 “영역의 회복”이라는 의미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구 되는 것 사이에 의미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 『개역간이국한문』에서도, 읍기 같은 곳에서는 나라의 영역의 회복이 아닌데도 “恢復”을 써서, 『개역간이국한문』 내부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이 쓰였다. 통일하기 어려운 말이다. 기본적으로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사용한 것을 따르되, 영역의 회복을 뜻하는 곳들은 恢復으로, 이전 상태로 복구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곳은 “回復”으로 조정하였다.

• 回復을 쓴 곳.

[창 40: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回復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마 12: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표적01(表迹) 「명」겉으로 드러난 자취. ≍표02(表) [3].

81) 회복(回復/恢復) 「명」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8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82)

손과 같이 回復되어 성하더라

• 恢復을 쓴 곳.

[삼상 7: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恢復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구역에서부터 回復이었으나, 문맥을 따라 恢復으로 개정한다.)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恢復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⑥ 장식(裝飾)⁸³⁾ : 본문에서 “단장(丹粧)”이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장식(粧飾)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장식(裝飾)”이 사용된 곳은 이 말로 적었다.

[레 8: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겹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裝飾)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행 28: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裝飾)은 디오스구로라

⑦ 의탁(依託/依託):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한자어를 다 올렸다⁸⁴⁾. 자전들은 “依託”만을 올리고 있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몸을 맡기거나 물건을 맡기는 것은 “依託”으로 적고, 말로 부탁(付託)하는 것은 “依託”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름을 의탁(依託)하는 경우에는 의탁(依託)을 썼다.

다만, 요 2:24에서는 특히 몸을 “의탁(依託)”한다는 말로 써서, 개역의 한자어를 유지하였다. 딤후 1:12도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하였다.

[요 2: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依託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親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시 22:8] 그가 여호와께 依託하니 救援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⑧ 보수 : 報酬, 補修, 報讎 세 말은 맥락에 따라 달리 적어야 할 동음이의어이다⁸⁵⁾.

[민 18: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報酬임이니라

83) 장식03(粧飾) 「명」얼굴 따위를 매만져 꾸밈. 또는 그 꾸밈새. ≡식장03(飾粧). 장식-하다02 「동」 【…을】 =>장식03.
장식05(裝飾) 「명」1)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함. 또는 그 꾸밈새.
84) 의탁(依託/依託) 「명」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이제 제대로 시집을 가기도 틀렸으려니와, 당장 목구멍에 풀칠할 길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 여기 와서 의탁을 한 것이다.』
부탁(付託) 「명」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또는 그 일거리.
85) 보수09(報酬) 「명」1) 고맙게 해 준 데 대하여 보답을 함. 또는 그 보답. 『가난한 이에게 남몰래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보수가 따를 것이다.』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報酬로 여겨지
거니와

● 補修⁸⁶⁾

[대하 24: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와의 진을 補修할 뜻을 두고

[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補修하는 자
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 報讎⁸⁷⁾

[시 149:7] 이것으로 못 나라에 報讎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⑨ 태평(太平/泰平): 『표준국어대사전』에는 太平과 泰平 둘 다 올림말로 올라
있다⁸⁸⁾. 『중사전』과 장삼식 『大漢韓辭典』은 둘을 의미상 구분하였다.

泰平 - 몸이나 마음이나 집안이 평안함. (『중사전』)

太平 - 나라나 사회가 잘 다스려져서(『중사전』)

泰平 - 나라가 잘 다스려져 평안함(太平)(『漢韓大字典』, 민중서림)

太平 - 나라가 잘 다스려져 평안함(『漢韓大字典』, 민중서림)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에,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은 개인적인 안식이나 안정
을 생각하면서 “泰平”을 사용하고,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맥락에 “太平”을 썼다.
『개역간이국한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

● 泰平

[왕상 5:4]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四方의 泰平을 주시매 怨讐도 없
고 災殃도 없도다

[행 24:3] 벨릭스 閣下여 우리가 當身을 힘입어 泰平을 누리고 또 이 民族이
當身の 先見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改善된 것을 우리가 어느
貌樣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感謝하나이다

● 太平

[왕상 2: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行한 일 곧 이스라엘 軍隊의 두 司令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텔의 아들 아마사에게 行한 일을 내가 알거
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太平 時代에 戰爭의 피를 흘리고 戰爭의
피를 自己의 허리에 띠어 밧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왕하 20: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當身이 傳한 바 여호와와의 말씀
이 좋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萬一 내가 사는 날에 太平과 眞實
이 있을진대 어찌 좋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⑩ “포악”과 “포학”은⁸⁹⁾ 『개역개정판』의 본문대로 구분하여 적는다.

86) 보수11(補修) 「명」 「1」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리함. 『하수도 보수/철교 보수 작업』 §

87) 보수10(報讐) 「명」 「명」=양갓음.

88) 태평(太平/泰平) 「명」 「1」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함. ≡태강(太康). 『태평을 누리다
/그들은 해마다 나라의 태평을 기원한다. § 「2」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음.

⑪ “표(表)”와 “표(標)”: “표(表)”와 “표(標)”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보아도⁹⁰⁾ 의미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표지(標紙)의 뜻이 있을 때는 표(標)를 쓰고, “표적(表迹)”의 뜻이 있을 때는 “표(表)”를 쓴다.

[겔 9:6] 늙은 者와 젊은 者와 處女와 어린이와 女子를 다죽이되 이마에 標 있는 者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聖所에서 始作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聖殿 앞에 있는 늙은 者들로부터 始作하더라

[신 22:15] 그 處女の 父母가 그 處女の 處女인 表를 얻어가지고 그 城門 長老들에게로 가서

⑫ 행장: 行狀과 行裝은 다른 말이므로⁹¹⁾, 의미에 맞게 구분하여 적는다.

• 왕들의 행장(行狀)

[대하 33:18] 므낫세의 남은 事蹟과 그가 하나님께 한 祈禱와 先見者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勸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王들의 行狀에 記錄되었고

• 나그네의 行裝

[겔 12:4] 너는 낮에 그들의 目前에서 네 捕虜의 行裝을

[겔 12:7] 내가 그 命令대로 行하여 낮에 나의 行裝을 끌러가는 捕虜의 行裝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城壁을 뚫고 坎陷할 때에 行裝을 내다가

⑬ 간사: 奸詐와 奸邪는 다른 말이므로, 구분하여 적는다⁹²⁾.

• 奸邪

[사 32:6] 이는 어리석은 者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不義를 품어 奸邪를 行하며 悖逆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者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者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89) 포악(暴惡) [포 : -] 「명」사납고 악함.

포학(暴虐) [포 : -] 「명」몹시 잔인하고 난폭함. 『포학을 부리다.

90) 표02(表) 「명」1) 어떤 내용을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보기 쉽게 나타낸 것. 2)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표문01(表文) [1]. 3) 표적01(表迹).

표04(票) 「명」1) 증거가 될 만한 쪽지. 차표, 배표, 비행기 표, 입장권 따위가 있다.

표05(標) 「명」1) 증거가 될 만한 필적. 2) 증거가 될 만한 형적. 안표(眼標) 따위를 이른다. 3) 같은 종류의 다른 사물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물만의 두드러진 특징. 4) 특징이 되게 하는 어떤 지점. 5) 표지02(標紙).

91) 행장01(行狀) 「명」1) 몸가짐과 품행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행장04(行裝) 「명」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행구01(行具), 행리01(行李) [1]. 『초라한 행장/행장을 꾸리다/행장을 차리다/행장을 챙기다/행장을 풀다/선비는 행장 속에서 붓과 벼루를 꺼냈다.

92) 간사01(奸邪) ‘간사하다01’의 어근.

간사-하다01 「형」간교하고 바르지 않다.

간사02(奸詐) 「명」교활하게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춤. 『그는 임금 앞에서 아양과 간사를 떨었다.

[습 3:4] 그의 先知者들은 輕率하고 奸邪한 사람들이요 그의 祭司長들은 聖所를 더럽히고 律法을 犯하였도다

• 奸詐

[시 52:2] 네 혀가 甚한 惡을 皮하여 날카로운 削刀 같이 奸詐를 行하는도다

[욥 15:5] 네 罪惡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奸詐한 者의 혀를 좋아하느냐

⑭ 번성(繁盛, 蕃盛)⁹³: 繁盛 蕃盛 둘 다 가능한 한자어이다.

『한한대사전』⁹⁴)

繁盛: 변화하고 창성함. (많을 번, 융성함, 번거로울 번, 무성할 번)

繁昌: 초목이 무성함. 번역하고 창성함.

蕃盛: 1) 자손이 많이 퍼짐. 2) 초목이 무성함.

『문리역』에서는 “繁多”를 썼고, 『개일역』에서는 “繁盛”을 썼고, 『선한문』에서는 “繁盛”을 주로 썼다.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繁盛” “蕃盛”을 함께 썼지만,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맥락에서는 “蕃盛으로” 적었다. 『개역간이국한문』의 이러한 판단을 『개역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다.

다만 “번창하다”의 의미로 쓰인 “번성”의 경우에는 “繁盛”(레 26:9; 시 105:24; 시 107:38)을 썼다.

⑮ 권유(勸誘)⁹⁵: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적은 것과 같이 본문의 맥락에 맞는 “권유(勸誘)”를 썼다.

[렘 20:7] 여호와와 여 주께서 나를 勸誘하시므로 내가 그 勸誘를 받았사오며

[행 19: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쏠 아시아를 通하여 數많은 사람을 勸誘하여 말하되

12. 한글로 적을 때 사이시옷이 붙는 한자어는 한자어로 적었다.

① 곳간 庫間⁹⁶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곳간(庫間)”을 52회, “곡간(穀間)”을 3회(마 3:12; 눅 3:17; 눅 12:18) 쓰고 있는데, “곡간(穀間)”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로, 조어를 해서 쓴 말이다. 사전의 표현대로 “곳간(庫間)”으로 통일하여 바로잡는다.

[렘 38: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王宮 庫間 밑 房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겅과 낚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

93) 번성(蕃盛/繁盛) 「명」 「1」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짐. ≡번연03(蕃衍). 『사업의 번성/번성을 누리다/자손의 번성을 빌다.』 「2」 나무나 풀이 무성함.

94) 民衆書館 編輯局 편,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6.

95) 권유02(勸誘) 「명」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

권유03(勸諭) 「명」 권하여 타이름.

96) 곡간01 「명」 ‘곳간’의 잘못.

곳-간(庫間) 「명」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게 밧줄로 내리며

② 횃돌 - 灰돌

[사 27:9] 야곱의 不義가 贖함을 얻으며 그의 罪 없이함을 받을 結果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祭壇의 모든 돌을 부서진 灰돌 같게 하며 아 세라와 太陽像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③ 저줏거리 - 詛呪거리

[민 5:21] (祭司長이 그 女人에게 詛呪의 盟誓를 하게 하고 그 女人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百姓 中에 詛呪거리, 盟誓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13.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랐다.

① 雙둥이(창 25:24):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雙童이”였음.

② 洞네(눅 2:39):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름. 『개역간이국한문』은 “洞里”였음.

③ 磬쇠(삼상 18:6)

④ 門지기(왕하 25:18): 『개역간이국한문』에서는 “門直이”.

⑤ 門설柱(출 21:6): 『개역간이국한문』에서 “楔柱”로 썼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⁹⁷⁾ “설”은 한글로 적는다.

⑥ 廳지기(갈 4:2)

⑦ 禿수리(출 19:4)

⑧ 골房(왕상 6:6)

⑨ 글字(단 5:5)

⑩ 標대(꽃대 - 빌 3:14)

⑪ 裸-자기⁹⁸⁾(삼상 10:22)

14. 두 가지 이상의 한자어로 적을 수 있을 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르지 않고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유지하였다.

① 모양(貌樣): 『개역간이국한문』에서 모두 “貌樣”을 쓰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模樣”을 쓰고 있으나⁹⁹⁾, 『동아한한대사전』¹⁰⁰⁾ 등의 용례를 근거로, 『개역』의 표기를 유지한다.

[창 5:3] 아담은 百三十 歲에 自己의 貌樣 곧 自己의 形像과 같은 아들을 낳아

97) 문-설주(門-柱) 「명」 『건』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98) 보자기(裸-) 「명」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

99) 모양02(模樣) 「I」 「명」 「I」 겹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100) 모양(貌樣): 『동아한한대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② 漏泄 -> 漏洩: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두 한자어를 다 올리면서, “漏泄”을 앞에 올리고 있으나¹⁰¹⁾,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라 모두 漏洩로 적는다. 사전들에서는 두 글자를 同字로 설명하고 있다.

[잠 11:13] 두루 다니며 閑談하는 者는 남의 秘密을 漏洩하나 마음이 信實한 者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③ 성품(性稟 / 性品): 왕상 2:4는 『개역간이국한문』에서 “性品”을 썼고, 수 22:5는 性稟을 썼다. 두 곳의 원어가 같고, 의미상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性稟”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와도 상응한다. 性稟으로 통일한다¹⁰²⁾.

벤후 1:4는 『개역개정판』에서도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性品”을 유지한다. 벤후 1:4의 경우에 『선한문』 性稟, 『문리역』 性情, 일본어 『구어역』 性質, 37년 『개역』 性品, 『개일역』 性品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수 22:5] 그에게 親近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性稟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왕상 2:4] 萬一 내 子孫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性稟을 다하여 眞實히 내 앞에서 行하면

[벤후 1:4] 神聖한 性品에 參與하는 者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④ 비유 譬喩¹⁰³⁾: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比喩”로 쓰지 않고, “譬喩”로 적는다. (『선한문』을 참고함.)

[잠 1:6] 箴言과 譬喩와 智慧 있는 者의 말과 그 奧妙한 말을 깨달으리라

15. 『개역간이국한문』에서 한자어를 달리 적은 곳으로, 내용상 구분할 필요가 있는 곳은 달리 적었다.

① 주장 主掌 / 主張¹⁰⁴⁾

[행 24:9] 유대인들도 이에 參加하여 이 말이 옳다 主張하니라

[대하 35:8] 方伯들도 즐거이 犧牲을 드려 百姓과 祭司長들과 레위 사람들에 게 주었고 하나님의 殿을 主掌하는 者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

101) 누설02(漏泄/漏洩) 「명」 「1」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 『방사능의 누설로 일대가 크게 오염되었다.』 「2」비밀이 새어 나감.

102) 성품01(性品) 「명」 「1」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성품02(性稟) 「명」=성정02(性情).

성정02(性情) 「명」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103) 비유01(比喩/譬喩) 「명」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104) 주장03(主張) 「명」 「1」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주장04(主掌) 「1」 「명」 「1」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또는 그런 사람. 「2」 『북』기본이 되거나 으뜸이 되는 것.

은 祭司長들에게 羊 二千六百 마리와 수소 三百 마리를 逾越節 祭物로 주었고

② 계교 計較 / 計巧¹⁰⁵⁾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신약 본문은 “計較”로 적었고, 구약 본문은 모두 計巧로 적었다. 잘못된 용어 사용이 아니고, 통일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 한자어들을 유지하였다.

[행 9:24] 그 計較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城門까지 지키거늘

[욥 5:12] 하나님은 狡猾한 者의 計巧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成功하지 못하게 하시며

[잠 6:18] 惡한 計巧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惡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 14:17] 怒하기를 速히 하는 者는 어리석은 일을 行하고 惡한 計巧를 피하는 者는 미움을 받느니라

③ 形狀, 形象, 形像¹⁰⁶⁾

이 세 말 중에서 形狀은 의미에 차이가 있는 다른 말이므로, 그 내용에 맞는 곳에는(겔 1:26; 10:22; 40:2) 『개역간이국한문』에서 썼던 대로 이 말(形狀)을 쓴다.

形象을 쓸 수 있으나, 『개역간이국한문』에서 “形像”으로 적은 곳은(창 1:27; 겔 23:14 등)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한자어를 달리 사용한 낱말은 원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말이다.

④ 굴복¹⁰⁷⁾: 屈伏과 屈服. 통용할 수 있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구분을 참조하여, 屈伏은 물리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동으로, 또 신 앞에 屈伏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을 屈服으로 적을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개역의 표현을 유지하되, 이러한 의미상의 구분을 맥락에 따라서 반영한다.

屈服: 창 27:29; 욥 9:13; 잠 25:26; 눅 11:22; 롬 8:7; 롬 8:20.

屈伏: 삿 3:30; 삿 4:23; 삿 16:5; 삿 16:6; 삼상 7:13; 삼하 22:40; 삼하 22:45; 시 18:39; 사 2:9; 사 2:11; 사 2:17; 사 31:4; 사 44:19; 사 45:14.

⑤ 항복(降伏/降服):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말을 같은 말로 올렸다¹⁰⁸⁾. 기본적으로 『개역간이국한문』을 따르되,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降伏”으로 적고, 나머지는 “降服”으로 통일하였다.

105) 계교01(計巧) 「명」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계교02(計較) 「명」서로 건주어 살펴봄. ≒계교06(較計).

106) 형상02(形狀) 「명」「1」=형상04(形象) 「2」어떤 일의 형편이나 상황.

형상04(形象/形像) 「명」「1」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107) 굴복01(屈伏) 「명」「1」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림. 「2」=굴복02(屈服).

굴복02(屈服) 「명」힘이 모자라서 복종함. ≒굴복01(屈伏)

108) 항복(降伏/降服) 「명」「1」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러서 굴복함.

降服: 민 32:29; 삿 11:33; 삼하 8:1; 왕하 7:4; 왕하 18:31; 왕하 25:11; 대상 18:1; 대상 20:4; 대하 13:18; 사 36:16; 사 45:1; 렘 21:9; 렘 37:13; 렘 37:14; 렘 38:2; 렘 38:17; 렘 38:18; 렘 38:19; 렘 38:21; 렘 39:9; 렘 50:15; 렘 52:15.
 降伏: 눅 10:17; 눅 10:20.

16. 속음이 있더라도 개역개정판에서 원음으로 쓴 말은 원음의 한자어를 썼다.

발교(醱酵): 원음은 “발교”이고, 속음은 “발효”¹⁰⁹⁾이다.

[출 12:34] 그 百姓이 發酵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출 12:34]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호 7:4] 그들은 다 姦淫하는 者라 菓子 만드는 者에 依해 달귀진 火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朶침으로 發酵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호 7: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귀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朶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맺음말

『개역간이국한문』 성경에 있었던 오류들을 바로잡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었다. 어떤 하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따를 수는 없었다. 각각의 경우에 그 말에 가장 적합한 한자어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원어의 의미를 천착할 필요가 있었고, 각종 국어사전과 한자 자전들을 참고하면서 그 원어에 상응하는 한국 한자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느 쪽이 맞거나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 통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었다. 이러한 낱말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두 개 이상의 한자어

109) 발효02(醱酵) 「명」『화』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탄산가스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좁은 뜻으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이른다. 술, 된장, 간장, 치즈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쓴다. ㄴ똥06, 띄우기, 발배02(醱醎).

를 동시에 같은 항목의 올림말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개역간이국한문』의 한자어를 따르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따랐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위에 두고 앞에 먼저 올린 한자어를 따를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살폈다.

번역자들의 과제는 원문에 상응하는 가장 적합한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겠지만, 한자어로 적지 않고 우리말로만 적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우리말 대응어를 찾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주요어

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선한문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간이국한문, 취음, 속자, 정자.

Easy Mixed Script, Mixed Script, a phonetic equivalent transliteration, the popular form of a Chinese character, the correct form of a character.

* 참고문헌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 경성: 대영성서공회, 1926,

『성경전서개역개정판』 3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貫珠聖經全書改譯簡易國漢文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4.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民衆書館 編輯局 편, 『新字海』, 서울: 民衆書林, 1988

民衆書館 編輯局 편,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6.

이가원, 권오돈, 임창순 감수,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2

이성실, “구약의 악기에 대한 소고와 우리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1 (200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장삼식, 『大漢韓辭典』, 서울: 教育書館, 1987.

한글학회 편, 『중사전』, 서울: 한글학회 출판부, 1959.

<Abstract>

A Report o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mixed script*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Translation Dept.)

This is a report on the principles used for mix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publica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mixed script*.

1. The fundamental principle was to respect the transcription principle and intent of the *Easy Mixed Script Holy Bible with Reference, Old and New Testaments Korean Revised Version* (1964) as much as possible. In this regard, all words that could be transcribed with Chinese characters were indicated in Chinese characters.

2. In cases when Chinese characters used to transcribe Chinese-originated entry words were different between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edited and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the *Easy Mixed Script Holy Bible*, the transcription was done per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contains the Chinese characters that are currently in use.

3. On the contrary, Chinese transcription of Chinese-originated words of the *Easy Mixed Script Holy Bible* was preserved when they were deemed more respectable than the ones in the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when it was regarded as necessary to do so in terms of semantics.

4. When Chinese characters of the *Easy Mixed Script Holy Bible* were incorrect or recognized as no longer in use nowadays, the transcription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originated entry words of the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5. For Chinese-originated words that were transcribed in both simplified and un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the transcription principle was to use unsimplified characters. However, when the simplified form was deemed to be more widely used, simplified characters were occasionally used as well.

6. In cases where native Korean words were transcribed with Chinese characters by adopting their pronunciation, they were written with Korean characters.